

인도 모디 정부 집권 1년차 FDI 동향과 전망

- 신세린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selynn@kiep.go.kr, Tel: 044-414-1327)

차 례 ●●●

1. 인도의 FDI 동향
2. 인도의 FDI 증가 요인
3.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모디 신정부 집권 1년차인 2014년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340억 달러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2014년 전 세계 FDI는 16% 감소하였으며 개도국과 아시아 전체 외국인투자 증가율은 각각 2% 9%에 불과함.
 - 산업별로는 서비스, 통신, 자동차, 컴퓨터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했으며, 특히 통신과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국가별로는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이 21.6%, 중국이 29.9%로 크게 증가한 반면 한국의 투자는 15.7% 감소함.
- ▶ 최근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는 모디 총리 집권 이후 △ 거시경제 개선 △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경쟁 심화에 기인함.
 - 인도의 2014/15년 성장률은 7.3%로 타 신흥국보다 높았으며, 물가안정과 재정·경상 수지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경제 안정성이 강화됨.
 - 또한 모디 정부는 외국인투자 지분한도 확대, 투자승인 간소화 등의 정책을 도입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발표와 함께 세일즈외교를 통해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이밖에 인도 시장 선점 및 확대를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인도 해외 투자가 활성화됨.
- ▶ 인도의 FDI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정부의 추가적인 투자유치정책 추진에 힘입어 당분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스마트시티 등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해외 기업들의 진출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노동법 개정안, 통합물품세(GST) 도입 등 투자확대를 위한 개혁안들이 조기에 통과될 경우 해외투자 유치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
- ▶ 시장선점을 위한 기업·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기업 역시 인도시장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대인도 FDI 금액은 한국의 13.8배에 달하며, 중국의 대인도 FDI 또한 2014년 4.9억 달러로 한국의 1.5억 달러를 크게 넘어섰음.
 - 일본, 미국 등은 개발협력자금을 통해 자국 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2015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0억 달러의 대인도 지원자금을 활용하여 한국기업의 대인도 진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인도의 FDI 동향

■ 인도 모디 정부 집권 1년 차인 2014/15 회계연도 기준(2014년 4월~2015년 3월)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대비 약 27% 증가한 309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1/1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300억 달러를 돌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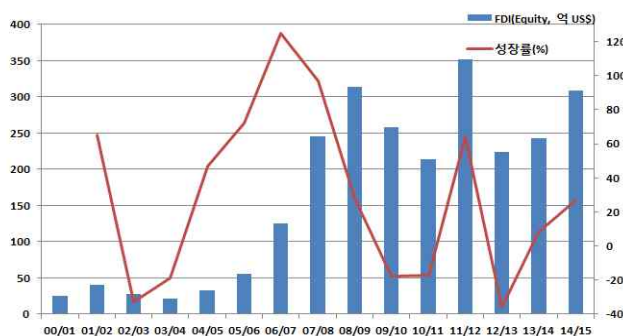
-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2008년과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어 최근 3년간 연평균 17% 증가함.

■ 2014년 인도는 개도국 및 아시아 전체는 물론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세계 9위의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로 부상함.¹⁾

- UNCTAD 기준 2014년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22%²⁾ 증가한 반면 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16% 감소했고, 개도국 및 아시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은 각각 2%, 9% 증가하는 데 그쳐 인도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 o 특히 상위 10개 국가 중 인도를 제외하고 전년대비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한 국가는 중국, 홍콩, 영국, 싱가포르 4개국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증가율 또한 영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음.

그림 1. 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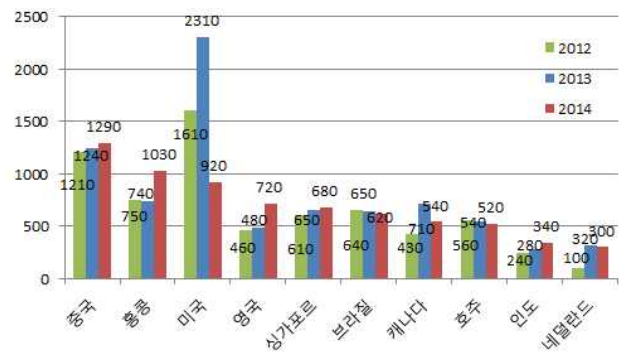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



주: 인도 회계연도 기준.
자료: 인도산업정책부.

그림 2.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현황

(단위: 억 달러)



주: Calendar 기준.
자료: UNCTAD(2015. 6), World Investment Report 2015.

■ 2014/15년 인도 외국인직접투자는 통신, 컴퓨터, 자동차,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통신과 자동차 부문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약 17%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에 약 325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전년 대

1) 2013년 15위였던 인도의 FDI 순위는 2014년 9위(340억 달러)로 상승함.

2) 국가별 비교를 위해 UNCTAD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calendar year 기준으로 인도정부에서 발표하는 회계연도 기준 금액과 다소 상이함.

비 46.2% 증가하여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증가를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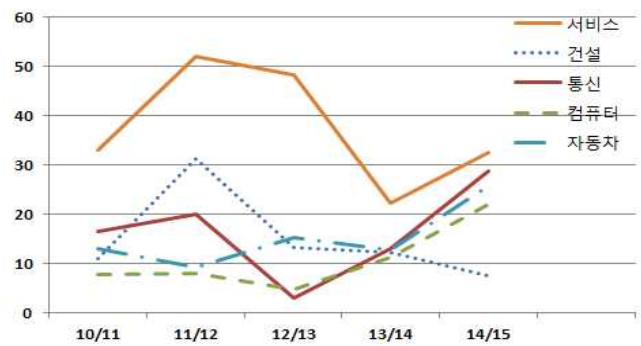
- [통신] 통신 부문 역시 외국인투자 지분 규제가 철폐됨에 따라 M&A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121.5% 증가한 28.9억 달러가 유입,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³⁾
- [자동차] 자동차 산업의 경우 생산설비 확충을 위한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와 부품산업에 대한 M&A 투자가 모두 증가하면서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69.4%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인 25.7억 달러를 기록함.
- [건설] 반면 건설업은 지속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도시 인근 지역의 개발용 토지 부족과 높은 지가,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확충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투자가 전년대비 38% 감소⁴⁾

표 1. 2014/15 인도의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억 달러, %)

분야	금액	증가율	비중
서비스	32.5	46.2	17
건설	7.5	-38.1	10
통신	28.9	121.5	7
컴퓨터	22.0	95.3	6
자동차	25.7	69.4	5
제약	15.2	19.0	5
화학	6.6	-23.8	4
전력	6.5	-38.3	4
금속	4.7	-16.9	3

주: 비중은 2000~2015. 3, FDI 총액 기준.
자료: 인도산업정책부.

그림 3. 인도의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변화
(단위: 억 달러)



주: 회계연도 기준.
자료: 인도산업정책부.

■ 대(對)인도 상위 투자국 대부분의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아시아 국가 중 중국과 일본의 투자확대가 두드러진 반면 한국은 감소

- 상위 10개 국가 중 영국(-55.1%)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대인도 투자는 모리셔스, 미국,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0~120% 이상 증가함.
- o 모리셔스, 키프로스 등 조세피난처 국가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싱가포르, 영국, 일본이 대인도 투자 상위국으로 나타남.
- o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국부펀드인 테마섹 등을 통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인도기업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 인도에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음.⁵⁾
- o 한편 인도는 조세피난처 국가와 조세협약 개정 협정을 진행 중이며, 「포괄적 조세회피 방지법안(General Anti-Avoidance Rules)」이 예정대로 2017/18년 시행된다면 향후 조세피난처를 거치지 않은 타 국가들의 FDI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⁶⁾⁷⁾

3) Times of India(2014. 10. 2), "FDI in telecom sector jumps manifold to \$2.33bn in April-July."

4) Rajeswari&Akilandeswari.(2015. 1), "Sector-Wi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Into India,"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 Social Sciences Research*, Vol. 4, No. 1.

5) 조충제 외(2012),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pp. 191~201, 연구보고서 12-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 India Briefing(2014. 9. 16), "India Continues Tax Dispute With Cyprus and Mauritius."

- 특히 일본과 중국의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각각 21.6%, 299% 증가한 반면 한국의 투자는 15.7% 감소
- o 2011/12년 약 30억 달러까지 증가했던 일본의 대인도 투자는 이후 2013/14년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2014/15년 전년대비 21.6% 증가한 약 21억 달러로 회복되면서 최근 5년간 연간 최소 15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 o 중국의 대인도 직접투자 금액은 2007년 1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특히 2014/15년에는 전년대비 약 4배 증가한 4.9억 달러가 투자되면서 1.5억 달러에 그친 한국을 크게 추월

표 2. 2014/15 인도의 국가별 F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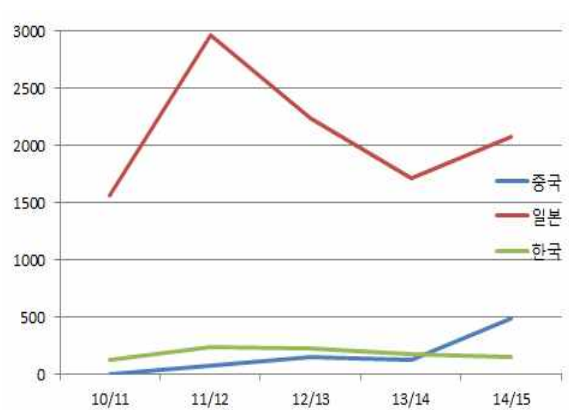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순위	국가	유입액	증가율	누적비중
1	모리셔스	90.3	86.2%	35.2%
2	싱가포르	67.4	12.7%	12.9%
3	영국	14.4	-55.1%	8.9%
4	일본	20.8	21.6%	7.3%
5	네덜란드	34.3	51.1%	5.9%
6	미국	18.2	127.5%	5.5%
7	키프로스	5.9	7.3%	3.2%
8	독일	11.2	8.7%	3.1%
9	프랑스	6.3	108%	2.0%
14	한국	1.5	-15.7%	0.6%
18	중국	4.9	299%	0.4%

주: 금액·증가율 FY 2014/15 기준, 순위·비중 2000~14 누적액 기준.
자료: 인도산업정책부, CEIC.

그림 4. 한·중·일의 대인도 FDI 연도별 금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IC.

2. 인도의 FDI 증가 요인

가. 거시경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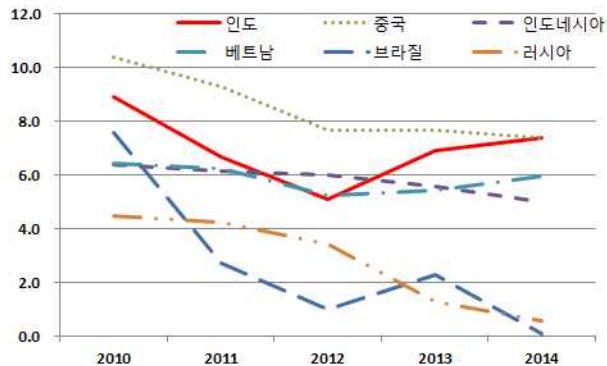
■ 최근 인도의 거시경제 개선과 함께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성장성]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2012/13년 5.1%까지 둔화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15년에는 중국(7.4%)과 비슷한 7.3%를 기록하였음.
- o 이는 같은 기간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신흥국가들의 성장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임.
- o 한편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은 중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신흥국의 2015~16년 성장률전망치를 하향조정한 반면 인도의 성장전망을 7.5~7.8%로 유지하면서 신흥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o 특히 IMF는 지난 7월 국가별 성장률 전망치 발표를 통해 2015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7.5%로 처음으로 중국(6.8%)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⁸⁾

7) India Briefing(2014. 12. 4), "Mauritius Overtakes Singapore as India's Top Source of FDI."

그림 5. 최근 주요 신흥국의 성장률 추이

(단위: %)



주: Calendar year 기준.

자료: 각국 중앙은행 및 통계청.

표 3. 주요기관별 인도 성장률 전망치

(단위: %)

기관(발표 시기)	2015/16	2016/17
IMF(7월)	7.5	7.5
세계은행(6월)	7.5	7.9
아시아개발은행(7월)	7.8	8.2
OECD(6월)	7.3	7.4
인도중앙은행(8월)	7.6	8.1
인도재무부(2월)	8.1~8.5	8.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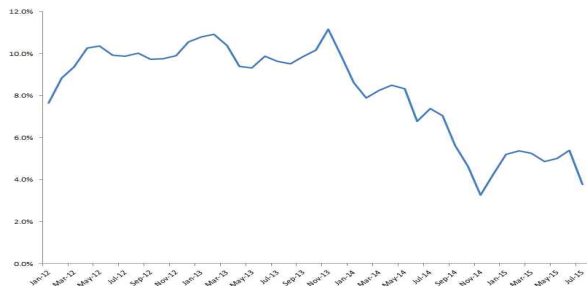
주: 회계연도 기준.

자료: 언론보도 종합.

- [물가안정] 2013년 라잔 총재가 인도중앙은행에 취임한 이후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고 보수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며 최근까지 4~5%대의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음.
 - o 2013년 9월 인도중앙은행 총재에 취임한 라잔 총재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14년 12월까지 3차례 금리인상을 단행(7.25 → 7.5 → 7.75 → 8%)
 - o 최근 물가수준이 안정됨에 따라 인도중앙은행은 성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세 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나(8 → 7.75 → 7.5 → 7.25%),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재정·경상수지적자 축소] 인도정부는 보조금 감축, 세수 확대, 공기업 매각 등 적극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을 바탕으로 2014/15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4.1%까지 감축했으며, 경상수지 적자는 금 수입 규제를 통해 1.4%까지 감축함.
 - o 인도정부는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여 재정적자 규모를 2015/16년 3.9%, 2016/17년 3.5%, 2017/18년 3.0%로 지속 감축할 계획

그림 6 인도의 물가상승률(CPI)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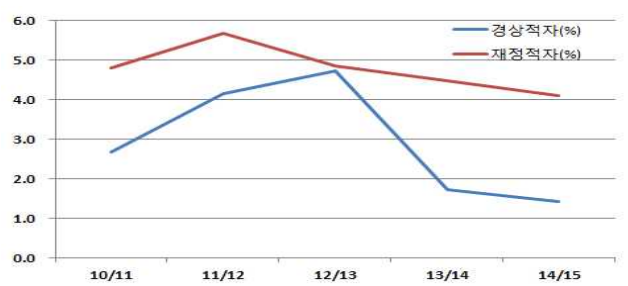


주: 2015년부터 기준연도 2012로 변경.

자료: 인도중앙은행.

그림 7.인도의 경상·재정수지(GDP 대비)

(단위: %)



주: 인도 회계연도 기준.

자료: 인도중앙은행.

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2014년 모디 총리 취임 이후 인도정부는 적극적인 규제완화 및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음.

- 최근 인도정부는 철도(0 → 100%), 방위산업(26 → 49%), 보험(26 → 49%) 부문의 외국인투자지분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 밖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자동 승인, 도시개발 규모에 대한 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실시함.
 - 또한 외국인투자 승인한도 금액을 300억 루피(약 5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은행의 역할을 FIPB에 일임하여 전반적인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⁹⁾ FIIA를 설립하여 섹터별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함.
 - 이 밖에 외국투자에 대해 증권, 로열티, 기술서비스 사용료, 이자소득에 대한 최저한세(MAT)를 면제하고 단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기타 투자 및 통관 관련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향상시킴.
 - 한편 최근 인도정부가 2015년 기준 142위에 불과한 기업환경순위(Ease of Doing Business)를 향후 3년 안에 30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향후 보다 적극적인 개혁정책 추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¹⁰⁾
- 특히 최근 모디 정부는 그동안 기존 정부가 추진하지 못한 노동법 및 토지수용법 개정, 통합물품세 도입 개혁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있음.

표 4.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완화 및 투자환경 개선 조치

구분	주요 내용
외국인투자 지분한도 확대	- 철도 0 → 100%, 국방 26 → 49%, 보험 26 → 49%, 의료장비 100%
건설 부문 최소투자 기준 완화	- 최소 투자금액 기존 1,0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완화 - 최소 투자규모(부지) 기존 5만 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로 완화
투자승인 규모 확대 및 간소화	- FIPB(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의 투자승인 한도 금액 확대(120억 루피 → 300억 루피) - 300억 루피까지는 FIPB의 승인만 필요(중앙은행 승인 불필요)
외국인투자관리 기능 강화	- FIIA(Foreign Investment Implementation Agency) 설립, 섹터별 외국인투자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외국인투자 관련 이슈, 분쟁, 애로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
법인세 인하	- 단계적으로 현 30%에서 25%로 인하(2019/20년까지)
기타	- 외국인투자에 대한 최저한세(MAT) ¹¹⁾ 면제 - 투자 시 환경/산립 평가 요청을 온라인으로 실시 -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 공장설립, 기계설비에 2억 5000만 루피 이상 투자 시 3년간 15% 투자세액 공제

자료: 보도자료 정리.

9) 그동안 자동승인 대상이 아닌 투자는 FIPB의 승인과 중앙은행의 최종 확인을 거쳐야 했으나, 동 조치가 실시될 경우 중앙은행의 확인 없이 FIPB의 승인만 필요로 하게 됨.

10) *Economic Times*(2015. 7. 8), "Government aims high, wants to be among top 30 countries in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11) 감면세액을 적용한 납부세액이 최저한세(18.5%) 이하로 되었을 때 부과하는 세금.

■ 또한 모디 신정부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사업 추진 계획을 잇달아 발표, 투자기회를 홍보하고 있으며, 정상회담을 통한 세일즈외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 모디 총리는 Make in India 캠페인을 통해 제조업 육성을 국가 핵심과제로 삼고 제조업의 국내외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음. 이를 위해 2014년 취임 이후 2015년 8월 현재까지 26개 국가를 방문하여 투자유치 활동에 직접 나서고 있음.
- o 인도정부는 모디 총리의 해외 순방을 통해 2014/15년 197억 8,000만 달러의 FDI가 유입된 것으로 추산¹²⁾
- o 이 밖에 인도는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 해외순방 시 맺은 MOU 등을 통해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음(프랑스 20억 유로, 한국 100억 달러, 일본 340억 달러,¹³⁾ 중국 220억 달러,¹⁴⁾ 미국 410억 달러¹⁵⁾).
- 도시개발과 디지털인프라 개발 등 이전 정부에서 실행이 미진했던 계획들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100개 건설, 디지털인디아 등의 계획을 발표하고 동 사업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o 2014년 발표했던 도시개발사업과 디지털인디아 사업에 2015년 각각 약 628억 달러, 178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 밖에 시행일정 및 민관협력참여방안 등을 확정·제시하면서 사업 추진을 보다 구체화 하고 있음.¹⁶⁾

표 5. 인도정부의 주요 개발 이니셔티브 내용

구분		내용
Make India	목표	· 인도를 제조업 허브로 변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 확보 · 25개 산업을 중점분야로 삼아 해당 분야에 투자규제를 완화하여 자본과 기술 투자를 유치
Digital India	중점 분야	· 모든 시민을 위한 디지털인프라 구축 ·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 시민들의 디지털역량 증진(Digital Empowerment)
	주요 개발목표	· 2020까지 전자제품 순수입 0(제로) 달성 · 직업교육 및 100만 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 2019년까지 25만 개 마을에 브로드밴드 구축 · 스마트폰 보급률 100% 달성 및 무선망 전국 보급 · 전자정부 및 전자서비스(eKranti) 제공, 보건·교육·금융서비스 등의 온라인화
도시개발사업	스마트시티 ¹⁷⁾	· 2020년까지 스마트시티 100개 건설 · 산업인프라, 거주 및 상업·교육 시설, 교통, 환경, IT 솔루션, 보건, 보안
	도시재개발(AMRUT) ¹⁸⁾	· 2020년까지 500개 중소도시의 기본인프라 개발 · 상하수도, 도시편의시설, 친환경교통시설, 녹지개발(공원)
	주택공급(Housing for all 2022)	· 2022년까지 슬럼지역 주민들에게 2,000만 가구 공급

자료: 언론보도 종합.

12) Livemint(2015. 8. 5), "India gets \$19.78 billion FDI from nations visited by Modi in FY15."

13) Times of India(2014. 9. 1), "Modi in Tokyo: Japan to invest \$34 billion in India, no nuke deal."

14) China Briefinb(2015. 5. 21), "Modi Visit to Fuel Chinese Investment into India."

15) Times of India(2014. 10. 5), "US investors bet on PM Modi, to invest \$41 billion in India in 3 years."

16) 인도 전자정보통신부, 인도 국가포털.

17) 인도가 추구하는 스마트시티는 첨단도시보다는 기본인프라가 갖추어진 신도시 개념에 가까우며, 인도정부는 스마트시티의 명확한

다. 글로벌 기업의 시장선점 경쟁 심화

■ 최근 인도의 거대 내수시장 선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자동차, 정보통신, 소매 산업 등을 중심으로 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임.

- (자동차) 최근 3년간 현대자동차, 스즈키, GM, 벤츠 등 글로벌 완성 자동차기업들이 생산시설 확충에 투입한 투자규모가 약 40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 자동차부품 산업 분야의 경우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M&A가 확대되고 있으며¹⁹⁾ 생산설비뿐만 아니라 R&D 형태로도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세계 4위인 인도의 자동차시장에는 저렴한 생산비용을 바탕으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²⁰⁾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진출해 있음.²¹⁾ 특히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설비확대 경쟁으로 2014/15년 인도에서 생산된 전체 차량 수는 2010/11년 대비 53% 증가함.²²⁾

표 6. 2013~15년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 자동차 산업 주요 투자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생산설비	· 현대자동차: 3억 달러 · 스즈키: 13억 달러 · GM: 10억 달러	· 벤츠: 1억 3,000만 달러 · 혼다: 5억 5,000만 달러 · 르노닛산: 7억 6,500만 달러
R&D	· 현대자동차: 17억 달러 · 포드: 7억 6,500만 달러	· 스즈키: 6억 2,000만 달러 · 혼다: 7,650만 달러
지분 투자	· FCC-Rico Auto에 8,000만 달러 · Kasai Kogyo-Antolin Kasai TEK Chennai에 460만 달러 · Shiroki-Technico India와 합작투자 · Hitachi Metals-RPS Vikas Castings, Garima Vikas Metals와 합작투자	

자료: 언론보도 종합.

- [IT] 2014년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통적인 IT 대기업들이 R&D와 클라우드서비스에 투자를 발표하였으며, IT 기기 생산에는 알리바바, 폭스콘 등의 중국계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었음. 또한 인도의 전자상거래 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아마존, 소프트뱅크 등이 시장선점을 위해 투자경쟁을 벌이고 있음.
- 폭스콘은 2014년 계획했던 20억 달러의 투자를 5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인도 기술제조업 사상 최대 투자규모이며,²³⁾ 레노버 또한 스마트폰을 인도에서 생산하겠다고 밝히면서²⁴⁾ IT 기기 제조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정의를 내리는 대신 각각의 도시가 나름의 스마트시티를 설립하도록 함.

18) AMRUT(Atal Mission for Rejuvenation and Urban Transformation)는 과거 도시재개발 프로그램이었던 JNNURM(Jawaharlal Nehru National Urban Renewal Mission)을 소도시 중심으로 재편.

19) Ernst&Young은 *Transaction 2015*에서 2014년 자동차부품 업계의 M&A 규모를 2억 9,100만 달러로 추산함.

20) *Times of India*(2015. 4. 17), "Volkswagen to invest Rs 1,500 crore with plans to make India low-cost export hub."

21) BMI(2015), *India Autos Report*, Quarterly 3.

22) EMIS(2015), *EMIS Insight- India Automotive Sector Report: Overview*.

23) *Forbes*(2015. 8. 10), "Foxconn Could Make India Its Next Manufacturing Base After China, Investments Suggest."

24) *Bloomberg Business*(2015. 8. 18), "Lenovo Joins Smartphone Compatriots for Make in India."

표 7. 2013~15년 글로벌 기업들의 IT 산업 주요 투자 현황

구분	주요 내용
R&D	· 인텔: 1억 2,000만 달러 · 화웨이: 1억 7,000만 달러
클라우드 서비스	· 마이크로소프트: 2,300만 달러
생산설비	· 폭스콘(스마트폰): 20억 달러 투자 · 델(컴퓨터): 3,000만 달러 · 알리바바(스마트폰, 타블렛): 12억 달러
전자상거래	· 아마존: 2014년 2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 · 알리바바, 소프트뱅크: 5,000만 달러

자료: 언론보도 종합

- [통신] 인도의 무선통신시장은 13개의 사업운영자²⁵⁾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세계 2위 시장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와 무선통신 가용범위 확장을 위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013년 통신산업에 외국인투자 지분제한이 폐지되면서 M&A 투자 또한 증가하여 보다폰은 2014/15년 역대최고인 15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²⁶⁾
- [소매] 인도의 소매시장은 2010~14년 5년간 연평균 12~13% 성장하여 해외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음.²⁷⁾ 특히 테스코는 2014년 Tata와 합작기업을 설립, 약 1억 4,00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²⁸⁾ 점포 확장을 위해 2015년 추가 투자를 발표함.²⁹⁾
- [보험]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투자 규제한도가 기존 26%에서 49%로 확대되면서 AXA, Nippon Life Insurance 등 글로벌 기업의 지분투자가 증가하였으며,³⁰⁾³¹⁾ 이에 따라 전체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에서 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2/13년 7.5%에서 14/15년 13%로 상승함.

3. 전망 및 시사점

■ 인도의 안정적인 거시경제 전망과 높은 성장률 전망에다 모디 총리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 추진 등으로 당분간 인도의 FDI는 증가 추세를 이어갈 전망

- 현재 모디 정부에서 추진 중인 Make in India, 스마트시티 100개 건설 사업과 Digital India 등의 대규모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외국인투자 유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25) BMI(2014), *India Telecommunications Report*, Quarterly 3.

26) Money Control(2015. 6. 16), "Vodafone India's \$1.5 bn investment biggest in Apr-Feb FY15."

27) KPMG(2014), *Indian retail the next growth story*.

28) Reuters(2014. 3. 21), "Tesco confirms joint venture with Tata in India."

29) Times of India(2015. 4. 24), "Tesco invested Rs 850 crore in multi-brand retail: Government."

30) BMI(2015), *BMI Insurance Report*, Quarterly 2.

31) Reuters(2014. 11. 26), "Japan's Nippon Life to raise stake in India's Reliance Capital fund unit."

- 주요 기관들 역시 모디 총리의 개혁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o A.T. Kearney는 현재 11위인 인도의 FDI 신뢰지수가 모디 정부의 적극적인 Make in India와 투자유치정책 등으로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
- o UNCTAD는 2015~17년 향후 다국적기업의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인도를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로 전망하였으며,³²⁾ Foreign Policy도 인도를 BPI(Baseline Profitability Index)지수 1위로 가장 투자가 유망한 국가로 선정³³⁾
- 특히 인도 신정부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통합물품세(GST), 토지수용법, 노동법 등 개혁법안들이 법제화될 경우 FDI가 더욱 증가할 전망

■ 다만 인도 신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법안들이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 단기에 법제화하기는 어려움.

- 토지 수용 시 주민동의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수용법 개정안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투자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으나,³⁴⁾ 2015년 8월 몬순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가결여부가 겨울회기로 연기됨.³⁵⁾
-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근간으로 하는 노동법 개혁안 역시 노조의 반대로 의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임.³⁶⁾
- 통합물품세는³⁷⁾ 세입감소를 우려하는 주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의회통과가 지연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동법 개혁안은 라자스탄, 구자라트 등 일부 주에서 이미 실행 중이고,³⁸⁾ 통합물품세 또한 개혁지향적인 주정부 및 기업이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최근 중앙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주정부의 세입감소분을 보상해주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 법안이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음.

■ 국제적으로 인도의 성장잠재력을 감안한 시장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우리 기업의 인도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인도는 이미 일본의 최대 투자대상국이며, 최근 중국의 대인도 투자 증가율 역시 급증하는 데 반해 한국의 투자는 최근 감소하고 있음.
- o 한국의 대인도 FDI 순위는 14위이나 국가별 누적비율은 0.61%로 미미한 수준이며, 2014/15년 FDI 금액은 1.5억 달러로 같은 해 중국 FDI의 1/3, 일본의 1/14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 o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인도에서 투자경쟁을 벌이고 있으며,³⁹⁾ IT 및 통신 분야에서는 최근 소프트

32) UNCTAD(2015), *World Investment Report*.

33) *Foreign Policy*(2015. 7. 25), "Where to Invest Around the World," Edition.

34) *Economic Times*(2015. 6. 10), "Land acquisition major impediment for investing in India: China."

35) *Livemint*(2015. 8. 11), "Fate of land acquisition bill to be decided in winter session now."

36) *UPI*(2015. 8. 11), "India's Parliament stall Modi's reforms."

37) 주, 특별구마다 다르게 부과되었던 간접세를 통일하여 부과하는 안.

38) *Business Standard*(2015. 5. 18), "Gujarat's approach to labour law reforms different from Centre's."

39) *Asia Today*(2015. 7. 28), "Hyundai India denies 3rd factory plan despite many reports."

뱅크, 알리바바, 화웨이 등 일본, 중국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공세에 나서고 있는 반면 한국기업의 투자는 부진한 상황임.

- 현재 그린필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를 M&A를 활용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음.
 - o 2014년 M&A 형태의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59억 달러로, 2012년 28억 달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⁴⁰⁾
 - o 특히 일본의 경우 2010년 18건이었던 대인도 M&A가 2014년 46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통신시장과 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의 대인도 M&A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실적은 거의 없음.⁴¹⁾
- 대인도 개발협력자금을 활용하여 한국기업의 인도 투자진출 기회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o 일본은 JICA를 통해 124억 달러 규모의 서부화물전용철도망(Dedicated Freight Corridor)을 비롯하여 첸나이-방갈로르 산업철도(CBIB), 델리-मुंबай 산업철도(DMIC) 등을 지원했거나 지원할 예정이며, मुंबай-아흐메다바드 구간 고속철도 또한 차관 제공을 논의 중으로,⁴²⁾ 일본기업의 인도 진출을 뒷받침하고 있음.
 - o 미국 수출입은행과 독일재건은행(KfW)은 인도에 각각 10억 달러와 11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여 태양광발전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⁴³⁾
 - o 우리나라는 2015년 5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인도에 10억 달러의 EDCF 자금을 포함하여 10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합의한 만큼 동 자금을 활용한 대인도 진출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서야함. KIEP

40) UNCTAD(2015), *World Investment Report*.

41)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 *India: A new dawn for Japanese companies?*

42) *Economic Times*(2015. 7. 20), "Mumbai-Ahmedabad bullet train project: Japanese agency submits final report."

43) *Bloomberg Business*(2015. 3. 27), "Renewables to Get Most of \$1 Billion ExIm Bank Credit."